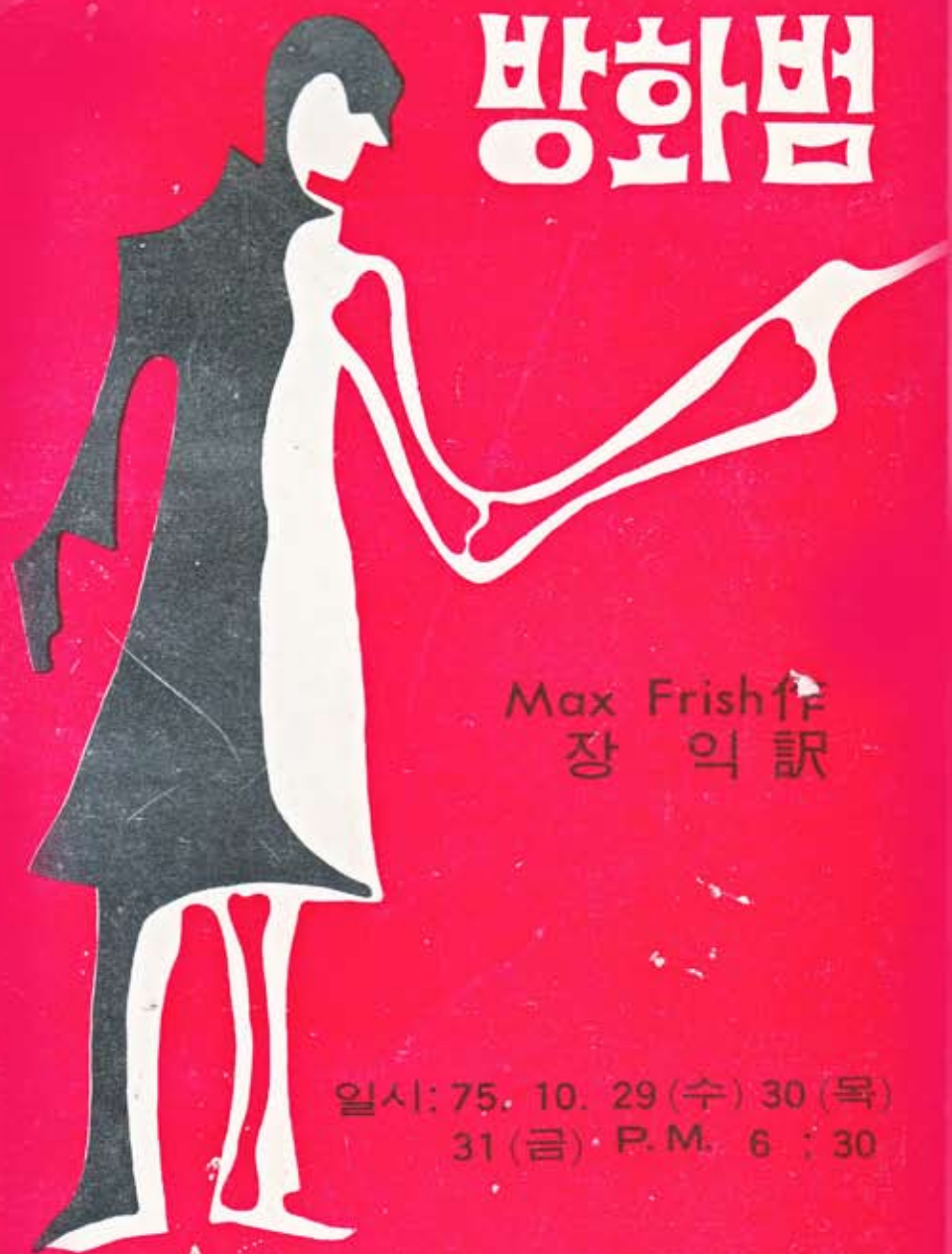


송대극회 제13회 공연

비더만 과 방화범



Max Frish 作
장 익 訳

일시: 75. 10. 29 (수) 30 (목)
31 (금) P.M. 6 : 30

장소 : 송전대학교 대학극장



격려사

날로 발전하는 중대극회가 스위스가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막스·후릿쉬의 작품 「비더담과 방화범」을 공연하는意義는 크다고 본다.

이런 값진 연극작품을 통해서 우리 송전의 젊은이들이 人間性에 처한 통찰과 社會에 처한 관찰과 또한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종합적 체험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극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종합예술로써 모든 다른 예술의 표현양식이 복합된 하나의 예술형식이다. 따라서 자기 표현의 기술을 연마하고 달성하는 일에 치중하는 본교의 교육 목표중의 한가지를 이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취하는 일은 그지없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다. 지금 송전의 캠퍼스에서 변학에 힘쓰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개방 사회의 주인공들이다. 그 주인공들이 연극속에서 人間性의 진리를 발견하고 人生의 참 뜻을 깨닫는 일은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

이번 공연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젊은 송전인들에게 보람이 되고, 송전의 빛나는 역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총 장 이한빈



막스 후릿쉬에 관하여

1911년에 태어난 막스·후릿쉬는 劇作家이면서, 小說家이요, 記者이며 건축가였다. 한평생 그는 그의 人格과 生業을 形成하는데 기여했던 社會的 힘을 탐구해 왔다. 그의 作品은 상실된 自我를 발견하기 위한 探求의 表現이 된다. 일러와 입센의 作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그는 한 동안 茱릿쉬大學에서 獨文學을 공부하기를 했다. 1933年 父親이 倖災 財政的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신문기자가 되었다. 1934年서부터 1936년까지 그는 南歐羅巴와 東歐羅巴로 旅行하면서 시베리아까지 갔다가 1936年 茱릿쉬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건축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兵役을 마치고도 했다. 그동안의 두편의 小說을 썼으며, 건축회사까지 설립한다. 재정적인 안정은 그로 하여금 劇作品에 몰두하게 했다.

그의 최초의 劇作品은 「산타크루즈」(1944年)으로서 社會의 힘에 의하여 형성된 인간의 운명을 인간이 스스로 변형시킬 수 있는가 하는 테마를 다루고 있다. 후릿쉬는 인간능력의 限界가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社會적인 제약 때문에 발전되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태도였다. 그의 다음 作品인 「이제 그들은 다시 노래한다」(1945年)는 二次大戰의 獨軍의 殘酷相을 그린 것으로서 美國의 劇作家 소운톤·와일더의 영향을 깊이 입은 것이었다.

후릿쉬의 다음 작품 「万里長城」(1946年)도 전쟁을 테마로 삼고 있다. 그는 이 작품을 쓰는데 있어서 劇作技法面에서 브레히트의 方法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歷史觀과 社會에 대한 태

도에 있어서는 브레히트와 판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쟁이 끝났을때」(1948年)는 戰後 구라파가 직면하고 있는 社會를 표현하고 있는데 후릿쉬의 社會批判 의식은 그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되는 큰 要素의 하나이다.

아이리만 재판을 방불케하는 「안도라」(1961年)는 후릿쉬는 이 작품속에서 世界二次大戰時 독일이 스위스를 侵犯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스리은 「放火犯」(1953·1958)의 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이 演劇을 이해하는데 도움 될듯해서 引用해 본다.

「스위스인이라는 사실은 부르조아의 道德이 내걸고 있는 理想에 맞추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共同體에서 生活하면서, 이웃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나는 가운데서도 푸리틴의 體面존중의 外觀을 힘껏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體面존중의 정신은 후릿쉬처럼 감수성이 강한 藝術家의 個性으로서는 특하면 반발하게되는 벽이다. 地方정치의 편협성, 罪를 절대토 범하지 않겠다는 치사스런 中立性을 지니고 우뚝대는 自己滿足등은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世界와 人間生活을 直視하려는 일을 필수로 멀리하려는 태도를 낳기 쉽다. 이같은 일은 責任, 罪, 유혹— 따라서 人生 그 자체로부터— 逃避하려는 태도이다.

指導教授 李泰柱

CAST



비더만: 이 용 식 (전자2)



바 벨: 이 진 선 (문 1)



슈미쯔: 이 승 원 (문 1)



아이선링: 한 철 (공 1)



안 나: 권 혁 선 (공 1)



철학박사: 남 성 회 (법 1)



경 관: 김 기 열 (기계2)

STAFF

기 획:	김 기 열 (기계2)
진 행:	신 영 배 (전자4)
연 출:	안 흥 순 (철 3)
조연출:	남 영 회 (법 1)
무 감:	한 승 회 (법 1)
장 치:	백 정 식 (문 1)
	우 순 천 (문 1)
효 과:	김 효 성 (경 4)
조 명:	이 영 표 (전자3)
의 상:	
소도구:	김 복 순 (문 1)
안 무:	김 현 진



백 정 식



김 복 순



신 영 배



김 현 진

CHORUS



소방대장 이 한 회 (문 1)



소방대1 전 경 호 (공 1)

公 演 年 譜



기획의 말

지겹다.
정말 지겹다.
그렇지만 이제 幕은 오른다.
사랑하는 演劇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 다녔다. 막을 위하여 뛰어
다녔다.
딩글고 덜드려 울며.....
꿈이 있기에 방황을 하면서도
남 다른 정열가지고 반복에 반복
을 거듭하면서.....
자, 막이 오르고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그리고 막이 오르기까지
힘써 주신 총장님, 학생처장님지
도교수님 사단장이하 저희 극회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안무물 위
해 힘써주신 김 현진님께 감사
드립니다.

— 극회장 김 기 열 —



演出的辨

大地 위에 함초롬히 솟아오른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연상해 보자.
눈 앞에 펼쳐진 場景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해 하
는가? 우리는 그 곳에서 生命에
의 歡喜와 삶의 意志를 엿 볼 수
있지 않겠는가. 眞實이 갖는 아
름을 지닌 채 成熟을 고대하면서
고요히 沈靜되어진 靈魂의 香氣
를 感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렇다! 거기에 虛偽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오직 眞
實인 創造의 若惱만이 있을 뿐이
다.

우리는 이 作品에서 社會의 調
化된 리듬의 不均衡에서 오는 질
식할 듯한 공기의 破壞성을 느낄
수 있다. 社會 계층사이의 격차,
個人에 대한 不信, 自身에 대한
信念의 缺如등 이와같은 相互設
理解 또는 不安은 소란한 不協和
음을 일으키게 한다. 노골적인 野
蠻性에 대한 讓步와 微笑는 自己
破滅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사랑의 승화요 기다림의
結晶体인 幕이 오른다. 여러 사
람에게 感謝드린다. 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안무를 맡아 애써
주신 김 현진氏에게 고마움을 전
합니다.

CHORUS

안 흥 순 (월화3)



소방대2 서 동철(공1)



소방대3 홍 인중 (문1)



소방대4 문 철주 (공1)

回	年 度	作 品 名	演 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대 주
2	1969년 10 : 10	"의 자 들" 이오네스꼬 작	이 대 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 봉 인
4	1970년 5 : 15	"聖者の 생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 영 재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유엘·베케트 작	김 양 기
6 回 演 劇 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건널목 삼화 * 윤 조 병 작 담배해독에 처해서 * 안본 제홍 작 황금단지 (로마극) * 푸라우터스 작 고도를 기다리며 * 사유엘·베케트 작	정 중 화 주 정 서 한 영 제 유 근 배 차 현 재
7	1971년 11 : 4, 5	저적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작	차 현 재
	1972년 5 : 25, 26, 27	생 일 파 티 * H. 핀터 작	한 영 제
9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 작	고 봉 인
10	1973년 10 : 25, 26, 27	방 H. 핀터 작 기도 (小) F. 아라발 작	차 현 재
11	1974년 5 : 27,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 5막) A. 까뮤작	정 중 화
12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 의 저복이	안 흥 순

CHORUS

